“중생 아프니 나도 아프다”…불교, 독재에 맞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군부독재 맞선 사부대중

김동수 열사–시민군 참여 ‘산화’
진각 이광영–총상 입고 속퇴해
성연 스님–시민군에 지원 활동
관음사 등 불교 학생회도 참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여줬던 사진. 계엄군이 몽둥이로 시민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다.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시민들을 전두환 신군부는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특히, 1980년 부처님오신날이었던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돼 아픔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부대중들의 면면을 조명했다.

시민군과 함께 산화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불자 중 가장 대표적 인물은 故 지광 김동수 열사(당시 22세)다. 그는 1980년 당시 조선대 공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남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높은 신심을 가졌다.

실제 그는 향림사와 관음사 고등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항쟁 직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진행부위원장으로서 전남도청 앞 광장 점등식을 진행했다. 5월 17일 봉축행사 일환으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법정스님·이항녕 박사 강연회도 주도했다.

모교인 조선대가 계엄군에 강제 점령당하고 학생들을 검속하자 김 열사는 잠시 목포로 피신했다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로 와 시민들과 함께했다. 평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누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강조해 온 그는 전남도청 항쟁본부에 들어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맡아 희생자들을 염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하지만 5월 27일 새벽 4시 3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포위하자 시민과 함께 대치했던 김 열사는 결국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주 하나와 대불련 배지만이 남아 있었다.

구호활동 중 총상…평생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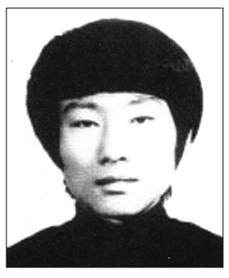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섰던 스님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2021년 11월 23일 자살로 유명을 달리 한 이광영 씨(진각 스님)다.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씨는 4시간마다 통증을 이기기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본래 이 씨는 화엄사로 출가한 스님으로 ‘진각’이란 법명을 썼다. 평생 스님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이 씨의 삶이 바뀐 장소는 1980년 5월 광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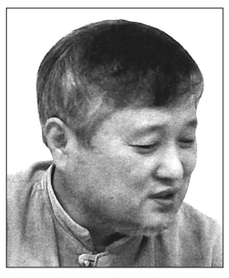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진각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준비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5월 19일 성연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러 나온 진각 스님은 계엄군의 잔혹한 시위 진압을 목격하게 되고 수행자로서 외면할 수 없어 금남로에서 시위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계엄군에게 잡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탈출해 나주 다보사로 몸을 피했다.

진각 스님은 5월 20일 성연 스님과 연락해 다시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걸어서 광주로 왔다.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지만, 스님은 시위대에 합류해 차량과 현수막에 구호를 쓰는 일을 주도했다. 스님이 쓴 구호들은 시위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항쟁의 목표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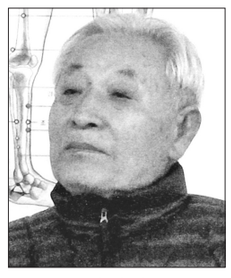
故 김동수 열사



故 이광영(진각 스님)



성연 스님



박행삼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계엄군은 적십자 깃발을 꽂은 차량에까지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으며, 스님과 다른 대원은 총상을 입었고 다른 대원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을 계엄군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해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이광영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 결성에 참여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1988년 5·18부상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의 기총사격을 폭로하고 전두환·노태우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은 2019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어갔다. 하지만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가두 연설…민주화운동 투신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에게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광주 증심사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성연 스님은 5월 19일 진각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하게 된다.

계엄군의 탄압으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정상적으로 봉행할 수 없게 되자 성연 스님은 5월 21일 증심사 신도회장단과 함께 법요식에서 나눠주려 했던 밥과 떡, 과일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전남도청 옆 노동청 사거리에서 시위대에게 보시했다.

보시를 마치고 난 직후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했으며,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전남대 병원으로 이동했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헌혈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했다.

시위대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던 5월 26일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한 성연 스님은 가사 장삼을 갖추고 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 올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연설했다. 당시엔 계엄군 첩자가 암약하고 ‘독침사건’으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종교인은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연 스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외친 것이다.

성연 스님은 항쟁을 위한 불교 조직을 구성하려 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침탈하면서 할 수 없이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몸을 피신하게 됐다. 이후 스님은 10·27법난이 발발하고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포승에 묶여 끌려가다가 대강백 월운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성연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여익구, 서동석 등과 함께 1985년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을 창립하고 이념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도 참여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창립되자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불교 교사, 학생들 일어나다

광주 지역 불자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도 주목해야 한다. 광주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당시 43세)는 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로 항쟁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5월 19일 대동고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고자 교문을 나서려고 하자 학생들의 생명이 걱정됐던 박 교사는 교문 앞에 누워 막았다. 이후 고향 해남으로 피신했던 박 교사는 5월 21일 해남군청 앞에서 광주서 내려온 시위대 차량 위에 올라가 주민들에게 “광주에서 우리 형제, 아들, 딸들이 계엄군들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광주로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장한 해남 시민군과 함께 트럭을 타고 광주로 향했고, 나주에 이르렀을 때 시민군의 트럭은 73대나 됐다. 시민군의 추대로 차량을 지휘하게 된 박 교사는 광주로 진격했으나 계엄군과 맞닥뜨려 협상 끝에 무장을 해제당했다.

이후 박 교사는 광주로 끌려와 보안대와 서부경찰서의 혹독한 취조를 겪고 결국 교직에서 쫓겨났다. 훗날 교사에 복직하게 됐으며, 민주교사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관음사·증심사의 불자들과 원각사 불일학생회, 덕림사 고등학생 불자들도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참고자료–〈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8–불교·원불교 편〉(5·18기념재단 刊)

“반민주적 12·3계엄, 5·18정신으로 이겨냈다”

조계종 사노위, 5·18 기념사업회
5월 16일 서울 법련사서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6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45주년 추모재를 봉행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군부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광주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6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사노위원 스님들과 김용만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서울기념사업회장, 이재수 김동수 열사 추모사업회 상임대표,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희생된 이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을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특히 당시 김동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이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서 항거하다 희생된 일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알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발언에서 ‘오월 영령들’의 넋을 두 손 모아 기렸다. ‘치유와 성장’을 강조한 스님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되새기는 또 다른 이유”라면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이어져 있기에 오늘 45번 째 추모재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치유와 성장의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계엄을 언급한 스님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5·18민주화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시는 처참하고 무력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도움을 받은 현재가 과거에 감사를 보내고 화답하는 장엄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진실을 바로잡고 알리는 데 사노위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추모재에서 스님들이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 대중이 영단에 국화와 절을 올리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서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패 소전의식과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5·18민주화운동 종산계승을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전통불교영산회, 5·18영령 추모 영산대재

5월 18일 5 · 18민주묘역서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스님, 법륜사 주지)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5·18민주항쟁 영령추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이수자인 월인 스님, 호산 스님, 혜령 스님을 비롯해 보존회 소속 스님 30여 명이 동참해, 1980년 5월 군부의 무력 진압에 희생된 시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 의식을 봉행했다.



월인 스님은 “군인들의 총칼에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광주 주먹밥 정신’ 기리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먹밥 나누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는 5월 17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제15회 망월동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자발적으로 이어졌던 시민들의 주먹밥 나눔을 재현한 것으로, 참배객들에게 주먹밥을 나눔으로써 오월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 창립 이후 매년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획실장은 “1980년 5월 광주의 상징이라면 주먹밥과 헌혈”이라며 “이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